

<2024학년도 1학기 국어교육과 졸업시험>

1.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설정과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른 교수-학습을 하고자 한다. 제시된 자료가 학습 목표를 달성에 적절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가)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판결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른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왼발로 걸어차서 땅에 넘어 지게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左右로 面相을 一回 加擊한 후 左足으로 一蹴하여 地上에 顛倒케 했다.'라고 한 판결문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어려운 한자 표기 때문에 읽을 수조차 없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글이 생활에서 쓰이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다. 공인 증개사 사무실에서 자주 쓰는 '裸塋地'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빈 집터'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굳이 뜻이 잘 통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과 한자 표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한글로 표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漢字)를 너무 몰라 거의 문맹(文盲) 수준이다.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민족문화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려되고 통탄스러운 상황이다. 한자 지식이 부족하니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없다. 언어와 문자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말과 글이 갖추어야 할 품위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말과 글은 어렵고 중후해야 한다. 이는 한자어 사용으로 가능하다. 한자 표기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중후한 느낌을 준다. 예컨대 헌법 조문이나 학술 서적이 한글 선용 원칙을 따른다면 얼마나 가볍게 보이겠는가, 한자어가 어렵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읽고 쓰기에 어렵다고 해서 한자 표기를 기피하니 우리 문화는 갈수록 천박해진다. 한자어 사용을 기피하고 한자 표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언어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편리한 언어생활을 위해서 한자어는 가능한 한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

3. 발표 수업에서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학생이 말하기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하고자 한다. 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말하기 불안의 유형과 원인을 제시하고 학생이 말하기 불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4.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 문학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작품 제시),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5. 다음 [보기] 자료를 활용해 '합성어 형성의 원리'에 대해 교수-학습하고자 한다. 아래 <작성 방법>에 맞게 교수-학습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보기] 뛰놀다 높푸르다 군밤 산들바람 접칼 산나물 본받다 들어가다
--

<작성방법>

- (1) 구성 방식에 따른 합성어의 유형을 설명할 것
- (2) (1)에서 제시한 합성어의 유형에 따라 [보기] 자료를 분류하고 형성 원리를 설명할 것